기업 기살려 현장 활기 되찾는다

전주시, 기업애로솔루션 전담반 · 창업기업 집중 인큐베이팅 등 추진

전주시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금과 판로, 투자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기업애로솔루션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또 창업초기 신생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을 집중 방문하고 기업지원책을 안내하는 '창업기업 집중 기(氣) 살리기 인큐베이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기업애로솔루션 전담반 구성·운영, 기 살리기 인큐베이팅을 골자로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 기 살리기'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이 연중 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침체된 산업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다.

우선, 시는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기 살리기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소기업 건의사항이 주로 자금과 판로, 투자 등의 문제해결인 것을 파악하고, 관련 공무원들로 기업애로솔루션 전담반을 구성해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시 즉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들 전담반은 기업과의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동시에, 시는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을 집중 방문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자금·인력지원, △환경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펼쳐 왔다.

이를 통해, 시는 302개의 기업으로부터 316건의 애로사항을 수렴, 이 중 293건을 완전히 해결했다. 나머지 23건도 현재 담당부서에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증을 위해 공장의 시설개선이 필수였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신기술의 연무방제기를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방치되었던 한 업체의 경우 지난 6월 군산등지에 AI 발생했을 때 거점소독 방역사업의 참여기회를 얻어 5억 가량의 제품을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업체는 이후 농장자동출입장치 설치사업에도 연계돼 판로를 넓혔다.

장기화된 경기불황 속에서 자금난에 허덕여온 기업들도 전주시의 경영지원 자금을 통해 고비를 넘겼다. 시는 이처럼 자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57개 업체에 103억원의 자금을 지원, 기업경영에 숨통을 열어줬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청년 창업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날에 맞추어, 따끈따끈한 신상 1호 제품 10대를 구입하여, 신제품 개발후 판로가 부족한 우리지역 기업의 첫 구매자 겸 홍보대사를 자처하였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시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형 강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외식업체, 편의점 등 6개 참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청소년 없어질까

전주시노사민정협 · 외식업체 · 편의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알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알바사업장인 외식업체, 편의점 등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1명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덕진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주시지부, GS25편의점 전북지사, CU편의점 6권역, 세븐일레븐편의점 호남지역팀 등 6개 참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청소년을 알바근무자로 고용하는 대표 사업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단체 대표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전주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사업주들의 준법경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노력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 노력 △시민의 감시체제 활성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 등이다.

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비정규직센터를 통해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3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 운영과 실태조사,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인증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이 모범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전주시도 모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저개발국가서 피는 '나눔의 꽃'

전북대 해외봉사단, 미얀마 등 지구촌 봉사활동 실천

매년 동·하계에 걸쳐 해외 저개발국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온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이 이번 겨울방학에도 해외 저개발국가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다.

전북대는 26일 오후 2시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동계 해외봉사단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해외봉사단은 이날 발대식에서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세계 속에 전북대를 심고 올 것을 다짐했다.

이번 동계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240명이다. 전북대는 지난 하계에도 200명의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대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미얀마와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모두 8팀을 파견하고, 의대 김선준 교수와 김정기 교수가 이끄는 해외봉사팀도 각각 필리핀 바콜로와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 사랑의 인술을 실천한다.

이날 해외봉사 발대식에서는 이남호 총장의 격려사와 학생대표의 결의문 낭독, 그리고 해외봉사팀 소개 등이 이어졌다.

발대식에서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모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거점국립대 2위 수준인 1,635만 원의 1인당 교육비를 투자하는 등 학생 지원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며 "앞으로 전대인의 해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전대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후기 일반고 신입생 원서 접수

2018학년도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시)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1만4,742명이며, 원서작성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은 전주 23교 6,690명, 군산 6교 1,620명, 익산 7교 1,800명 등 총 36교에서 1만110명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일반고는 54개교에서 4,632명을 뽑는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모집정원은 지난해(36교 10,387명)보다 277명이 줄어든 규모로, 일반고 학급당 정원을 전주·군산·익산시 모두 30명으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배치 적정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준화 및 비평준화 일반고 응시 원서는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사흘간 출신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재학 또는 출신중학교에서 나이스(NEIS)로 작성한 원서를 전북고입전형포털(http://satp.jb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